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

-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우미영*

〈차례〉

1. 서론
2. 구조적 폭력과 주체화의 역설
3. 폭식/채식/거식과 자기 징벌
4. 불가능한 발화와 가면의 전략
5. 마무리: 우울증과 여성의 주체화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강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체화의 방식을 우울증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내 여자의 열매』(1997), 『그대의 차가운 손』(2002), 및 『채식주의자』(2007)이다. 이들 작품의 중요 여성 인물로 등장하는 영혜, L, E 그리고 인혜의 서사적 의미를 통해 이들의 주체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채식주의자』연작의 모태가 된 『내 여자의 열매』를 통해 여성의 주체화와 구조적 폭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내 여자의 열매』의 여성 인물인 '아내'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린다. 이 글에서는 여성 주체가 앓는 고통의 알 수 없음을 비가시성을 특성으로 하는 구조적 폭력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특히 이 구조적 폭력에 대한 복종과 거부의 복합적 관계 속에서 여성의 주체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의 양상은 『그대의 차가운 손』과 『채식주의자』의 바탕에도 깔려 있

* 한양대 정책학과 조교수

어 각 작품의 여성 인물들을 우울증적 주체로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폭식, 채식 및 거식은 우울증적 주체의 자기징벌적 양상과 관련된다. 더불어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공통적 양상인 여성 주체의 피화자화의 의미도 함께 살펴보았다. 나아가 발화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여성 주체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가면의 전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우울증적 주체의 양상은 단순히 병리적 증상이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형성해가는 여성의 자기주체화 방식이다.

핵심어: 한강(Han Gang) 구조적 폭력(systemic violence) 우울증(melancholia) 우울증적 주체(melancholic subject) 주체화의 역설(The paradox of subjection) 자기 징벌 (self-punishment) 피화자(narratee) 가면(masquerade)

1. 서론

한강은 『내 여자의 열매』(1997, 봄)에서 『채식주의자』(2007)에 이르기까지 식물성을 꿈꾸는 여성 인물에 관한 일련의 소설을 발표하였다. 『채식주의자』의 출발점이 된 『내 여자의 열매』는 “한 여자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물이 되고, 함께 살던 남자는 그녀를 화분에 심는 이야기”¹⁾다. 이 작품에서 ‘여자의 식물 되기’ 모티프는 주제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곧 여성-자연-생명, 남성-문명-소비라는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의미 대립이 선명하다. 이러한 대립성은 이 작품을 자연-생명-생산으로서의 여성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²⁾ 『채식주의자』(2004, 여름)-『몽고반점』(2004, 가을)-『나무 불꽃』

1) 한강, 『작가의 말』, 『채식주의자』, 창비, 245쪽.

2) 김미영, 『소설교육의 한 가능성-생태소설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3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봄, 469~492쪽.

(2005, 겨울) 연작인 『채식주의자』에 이르면 여성-식물성의 모티프가 여전히 지속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여성 주체의 내면은 식물성과 등가적이지 않다. 이 점에서 『채식주의자』는 「내 여자의 열매」와 구별된다. 여기에서는 “식물성의 추구”가 아닌 ‘동물성의 제거’에 더 초점을 두는 여성 주체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주체의 외부가 아닌 “식물이 되려는 여성 자체의 내부에 내재”한다.³⁾ 그 결과 식물성과 동물성은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남성-문명, 여성-자연이라는 「내 여자의 열매」의 관점을 『채식주의자』에 적용하는 것은 후자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주체의 복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⁴⁾ 여성을 자연과 동격화하는 이러한 관점은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을 본질화 하는 결정론에 빠질 수 있다. 나아가 자연, 영성, 여성을 동일한 범주로 결합함으로써 여성의 윤리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생태페미니즘은 생물학적 결정론을 전복하려 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바로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경우 여성 주체의 복합적인 내면이 신비화되거나 낭만화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주체의 현실 즉 주체가 구성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희석되거나 간과된다. 『채식주의자』에서 주인공은 식물로의 변신에 성공했다기보다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존재”⁶⁾로서

송연주, 「여성소설에 나타난 변신모티프와 환상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4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12, 283~308쪽.

3) 김미현, 『젠더 프리즘』, 민음사, 2008, 336~337쪽.

4) 김순옥,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변신모티프의 양상과 의미 고찰-최인석, 한강, 오수연, 박민규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1.2, 59~98쪽.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9, 문학과환경학회, 2010.

이찬규 · 이은지, 「한강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연구-『에코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46,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5) 임옥희,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38쪽.

6)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여성 주체에 대해 김미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버틀러에 의하면 이럴 때 여성은 우울증적 주체가 된다. -중략- 채식주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거부해야만 하는 동물성을 자신의 내부에 불완전하게 합체

동물성을 품은 식물, 남성성을 품은 여성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 여성 주체는 우울증적 주체로 명명될 수 있다. 우울증적 주체로서 이들이 갖는 특성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러한 관점에서 한강의 소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점이 우선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 작품들이 주로 생태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평가됨으로써 간과된 여성 주체의 현실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 주체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면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강의 소설에서 여성 주체는 기존의 남성/여성의 이분화된 정체성의 틀에 갇히지 않고 양자의 향을 복합적으로 내면화하면서 자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이 존재하는 현실태로서 여성 내면의 복합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한강의 소설에서 여성의 몸은 주체의 구체적인 내면상을 구현하고 있는 공간이다. 특히 “여성의 경험 자체가 이미 가부장적 상징질서에 의해 오염된 것이라면, 그런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성성이 투명할 수는 없다.”⁷⁾고 할 때 그녀의 소설에는 ‘해석되고 오염된 불순하고도 불투명한 공간으로서의 여성의 몸’이 잘 드러나 있다. 이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내 여자의 열매』,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 주체의 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이질적인 담론들이 어떻게 침여하게 대립하면서 여성 주체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⁸⁾

하고 있기에 이중적이고 모호하다. 이럴 때 채식과 육식의 대립은 무의미하다. 그러니 우울증적 채식주의자들은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주체이자 비순수성을 지닌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김미현, 앞의 책, 340~341쪽.) 이는 남성/여성의 성차적 관점을 뛰어넘은 이 작품의 여성 주체의 복합적 특성을 정확하게 짚어냈다고 본다. 하지만 이 글은 소략한 논의에 그쳤을 뿐 관련 의미망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않았다.

7) 임옥희, 앞의 책, 39쪽.

8) 『내 여자의 열매』는 『창작과비평』, 1997년 봄호에 실렸으며, 『내 여자의 열매』 『그대의 차가운 손』의 초판본은 2002년에 『채식주의자』의 초판본은 2007년에 발간되었다. 이 글에서 텍스트로 삼은 것은 『내 여자의 열매』(창비, 2010), 『그대의 차가

2. 구조적 폭력과 주체화의 역설⁹⁾

『내 여자의 열매』는 『채식주의자』 연작의 모태가 된 작품이다. 이 작품의 표면에 두드러지는 것은 궁극에 가서 식물로 변해버리는 아내의 변신 및 그와 더불어 작품을 지배하는 식물적 상상력의 언어이다. 작품의 주를 차지하는 이러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왜 식물이 되는가이다.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병원에서도 이상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갓난아이의 손바닥만한 연푸른 피멍”으로부터 비롯된 멍자국이 점점 커지면서 아내는 초록빛 식물로 변해버렸다. 이처럼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유추는 가능하다. 식물이 되어가면서 나는 아내를, 아내는 스스로를 사후적으로 되돌아본다. 아내의 변신 이유는 이에 대한 기술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내가 꿈꾼 것은 어머니와는 다른 삶이었다. 즉 빈촌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고향을 떠나 본 적이 없던 어머니와는 달리 그녀는 “육개월쯤 한 나라에 머물다가 다른 나라로 떠나고, 그곳에서 다시 몇 달을 머무르다가 또다른 나라로 떠”나는 자유로운 삶을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했고, 그 결과 도시 아파트에서 답답한 삶을 살아야했다. 남편은 처음부터 아내의 소망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아내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근거할 때 아내의 변신은 어머니와 남편으로 상징화되는 가부장적 세계에 대한 거부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차원의 이

운 손』(문학과지성사, 2010), 『채식주의자』(창비, 2010)이다. 이하 본문 인용의 서지는 작품명과 페이지수만 밝히기로 한다.

9) 주디스 버틀러는 『권력의 심리 상태』에서 주체가 어떻게 권력과의 복종 관계 속에서 자신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살피고 있다. 이 때 권력의 형식으로서 복종(subjection)은 역설적이다. 복종은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인 동시에 권력에 종속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복종이 주체화의 과정인 동시에 종속의 과정임을 의미한다. 곧 복종의 역설은 주체화의 역설이기도 하다.(Judith Butler, *Psychic Life of Power*,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1997, pp.1~2.)

유일 뿐이다. 또 다른 이유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차원이다. 즉 『내 여자의 열매』에서 아내의 변신 이유는 표층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가시성과 내적인 차원에서 해독되지 않는 비가시성의 두 차원에서 기술된다. 남성 혹은 가부장적 세계에 대한 거부가 전자에 속한다면, 끝내 밝혀내지 못한 피멍의 원인은 후자에 속한다.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두 차원은 아내가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어머니, 어머니처럼 될까봐 나는 멀리멀리 여기까지 떠나왔어요. 열일곱 살 때였지요. 무작정 집을 나와 달포 넘게 헤매다녔던 부산, 대구, 강릉의 시가지들을 잊을 수 없어요. 일식당에서 나이를 속여 홀심부름을 하고 저녁이면 독서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나는 그곳이 좋았어요. 시가지의 휘황한 불빛, 시가지의 화려한 사람들이 좋았어요.

어머니.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이 거리를 늙고 망가진 얼굴로 떠돌게 될 줄 그때는 몰랐어요. 고향에서도 불행했고 고향 아닌 곳에서도 불행했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나는 한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어떤 끈질긴 혼령이 내 목을, 팔다리를 옥죄며 따라다녔을까요. 아프면 울고 꼬집히면 소리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언제나 달아나고만 싶었어요. 울부짖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얼굴을 하고 버스 뒷자석에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 주먹으로 유리창을 박살내고 싶었어요. 내 손등에 흐르는 피를 게걸스럽게 핥아먹고 싶었어요. 무엇이 나를 그토록 괴롭혀서, 무엇으로부터 달아나겠다고 나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왜 가지 못했을까요. 병신처럼, 왜 훌훌 떠나 이 지긋지긋한 피를 갈지 못했을까요.

『내 여자의 열매』, 237쪽.

그녀는 한 장소에 붙박지 않고 자유롭게 떠도는 삶이 어머니와 다른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집을 나왔지만 떠돌이적인 삶

이 가져다주는 충족감은 한시적이었다. 집을 나온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어떤 끈질긴 혼령”에 시달렸다. 외적으로는 원하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내적으로는 또다른 욕망에 시달린다. 여기에서도 내외, 혹은 가시와 비가시의 차원은 서로 양분된다. ‘피멍’이 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괴롭히는 ‘혼령’의 실체 또한 알 수 없다. 외적 차원에서 어머니와 다른 삶에 대한 욕구 즉 어머니를 둘러싼 가부장적 세계에 대한 거부만이 명확하게 드러날 뿐이다.

『내 여자의 열매』에서 아내의 정체성은 이 두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형성된다. 가부장적 세계에 대한 거부 의식은 남편과 어머니로부터 비롯되는 세계의 폭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아내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은 그에 대한 거부 의식만이 아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데, 고통의 물리적 현현이 ‘피멍’이다. ‘피멍’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식물이 되어버리지만, 그에 대한 원인은 끝내 알지 못한 채 작품은 마무리된다. ‘피멍’ 혹은 ‘어떤 끈질긴 혼령’의 괴롭힘은 의식의 차원에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체의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욕망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녀의 변신에 나타난 가시와 비가시의 차원은 지젝이 말한 폭력의 주관적·구조적 차원과 연결지어 좀 더 설명해 볼 수 있다.

지젝은 폭력을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폭력은 주관적(subjective) 폭력이다. 이것은 범죄, 테러행위, 사회 폭동, 국제 분쟁과 같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행위자가 저지르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폭력에 해당한다. 두 번째 폭력은 상징적 폭력이다. 이는 언어를 통해 구현된다. 이 폭력은 습관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 재생산되는 사회적 지배관계나 선동적인 언어를 통해서만 구현되지 않는다. 이는 언어가 갖는 근본적인 특성이다. 즉 언어는 사물 혹은 대상의 본질을 분리해내면서 언어화 즉 상징화하는데, 이처럼 대상에 규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폭력적이다. 세 번째가 구조적(systemic) 폭력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회 구조가 발생시키는 폭력으로서 정치 경제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파국적 결과이다. 지젝은 상징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객관적 (objective) 폭력이라고 하여 첫 번째의 주관적 폭력과 구별한다. 주관적 폭력은 가시적 폭력으로서 정상적이고 평온한 상태를 혼란시키는 것으로 비쳐진다. 이와 달리 객관적 폭력은 정상적인 상태에 내재하는 폭력이다. 그 결과 비가시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폭력을 지각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¹⁰⁾

지젝의 폭력 개념은 『내 여자의 열매』의 ‘아내’가 앓고 있는 ‘알 수 없는’ 고통을 해명하는데 도움이 된다.¹¹⁾ 그의 관점에 비추어보면 남편과 어머니로 대변되는 가부장적 세계의 폭력은 주관적 폭력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폭력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피멍’의 알 수 없는 원인은 객관적 폭력 특히 구조적 폭력의 양상과 유사하다. 구조적 폭력은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파국적 결과”라고 했다. 이와 동일하게 그녀의 증상에 대해 의사는 “모든 것이 ‘노말’이라고” 말했다. “위, 간, 자궁, 콩팥 모두 정상인데. 그것들이 모두 서서히 사라지”면서 맞게 된 ‘파국적 결과’가 그녀의 변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신의 이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부장적 세계의 폭력 속에서만 극대화되어 논의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 폭력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 외양을 갖춘 주관적 폭력을 통해 더욱 더 깊이 은폐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 여자의 열매』의 아내와 구조적 폭력은 어떤 관계일까? 이는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세계의 구조와 여성이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10)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2, 23~25쪽.

11) 지젝이 객관적 폭력의 개념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혹은 은폐된 폭력에 대한 고려이다. 주관적 폭력은 가시적이기 때문에 폭력성을 쉽게 지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 폭력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지각 자체가 어렵다. 이처럼 객관적 폭력이 비가시적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폭력이라고 지각할 때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폭력은 “단지 주관적 폭력의 ‘비이성적’ 폭발”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폭력으로 지각하게 하는 배면에 깔린 보이지 않는 폭력 즉 상징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다. 위의 책, 24~25쪽.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주관적 폭력에 대한 단순한 반발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작동하는 것은 그에 대한 복종과 거부의 양가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상 끝까지 가보고 싶어. 가장 먼 곳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쉬엄 쉬엄.

그러나 세상의 끝으로 떠나버리는 대신 아내는 그 얼마 안 되는 자금을 이 아파트의 전세금과 결혼비용에 털어 부었다. “아무래도 헤어질 수가 없어서”라는 짝막한 한마디로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 중략 -

그러나 몸이 자주 아픈 탓이었겠지만, 좁은 어깨를 시든 배춧잎처럼 늘어뜨린 채 베란다 유리문에 뺨을 붙이고 서서 질주하는 차들의 모습을 내려다 보고 있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내려앉곤 했다. 마치 누군가의 투명한 팔이 아내의 어깨를 결박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 않는 사슬과 묵직한 철구(鐵球)가 발과 다리를 움죽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은 채 거기 서 있었다.

『내 여자의 열매』, 224~225쪽.

위 예문은 아내의 욕망과 세계의 욕망이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상 끝까지 가보고 싶어”하던 아내가 선택한 것은 결혼이었다. 결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고 싶어하던 그녀가 결국 결혼을 선택한 것은 가부장적 담론에 대한 자기 복종 행위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헤어질 수가 없어서”라는 아내의 “ 짝막한 한 마디”에는 거부와 복종의 이중적 의미가 병존한다. 이는 결혼에 대한 자기 복종이 전적인 복종만은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베란다에서 수인처럼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복종(subjection)을 통해서이다. 즉 인간의 주체성은 권력과 법의 호명에 무의식적으로 응대하면서 형성된다. 이 무의식적 응대에는 단순히 선행적

으로 주어진 권력적 효과뿐만 아니라 행위(agency)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까지 포함된다.¹²⁾ 즉 주체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복종하면서 형성되지만, 주체에게는 복종 속에 완전하게 흡수되지 않은 잔여물이 있다. 이로 인해 외부 세계의 담론에 의해 전적으로 일원화된 총체적 주체화가 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잔여물은 주체에게 새로운 의미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¹³⁾ 이처럼 주체는 기존의 법과 권력의 호명에 복종하면서 형성되지만, 권력이 개인의 내부로 내면화되면서 무의식이 되는 순간 주체는 권력의 무의식이라는 스스로에 반하는 저항성까지 가지게 된다.¹⁴⁾ 이처럼 주체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종의 방식은 복종과 거부의 다양한 저항점들을 통해 형성된다.¹⁵⁾ 이렇게 볼 때 근본적으로 복종은 역설적 양상을 띠게 된다. 복종이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주체화의 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복종의 역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법이나 권력의 소환에 복종하면서도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잔여물을 남김으로써 복종 아닌 복종을 하는 주체의 양상이다.¹⁶⁾ 『내 여자의 열매』의 아내의 변신은 바로 이러한 잔여물 혹은 잉여와의 관련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피명’은 가부장적 세계의 질서에 복종하면서도 전적으로 복종되지 않고 남은 잔여물이 물질화된 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아내의 “알 수 없는” 차원은 권력의 무의식적 저항점 가운데 하나로서 주체가 복종한 권력이 스스로에 반하면서 새롭게 의미화 하는 지점이다.

12) Judith Butler, *op.cit.*, p.2.

13)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한국학술정보(주), 2007, 220~222쪽 참고.

14) 위의 책, 206쪽.

15) 권력과 저항점에 관해서는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제1권 앎의 의지』, 나남, 1993, 109~110쪽 참고.

16) 조현준, 앞의 책, 221~222쪽.

3. 폭식/채식/거식과 자기 징벌

지금까지 『내 여자의 열매』에 나타난 아내의 변신과 관련하여 여성 주체에게 내면화된 구조적 폭력과 주체화의 역설을 살펴보았다. 이는 여성이 가부장적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 아내가 자신을 둘러싼 지배적 담론인 가부장적 삶의 환경과 맺는 관계는 복합적이다. 즉 가부장적 세계에 대한 자기 복종은 완전한 복종이 아닌 거부가 포함된 복종이며 이 때 발생한 잔여물이 의식의 차원에서는 해명되지 않는 ‘피멍’이다. ‘피멍’이 온 몸으로 변지면서 초래된 식물로의 변신은 아내 내면에서 승화되지 못한 잔여물이 극대화된 결과이다. 초록빛 식물은 결국 가부장적 세계와의 무의식적 불화가 만들어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내가 결혼을 선택하면서 자신이 바라던 이상적 삶을 표면적으로는 포기했지만 내적으로는 포기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록빛 식물은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는 이상적 삶에 대한 포기 곧 상실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이 지점에서 식물로의 변신은 우울증적 주체와 관련을 맺게 된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상실에 반응하는 방식을 슬픔(Trauer) 혹은 애도와 우울증(Melancholie)으로 나누어 설명한다.¹⁷⁾ 슬픔이란 의식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상의 상실이다. 대상에게 집중되었던 리비도가 철회되어 새로운 대상에게 전위되면서 슬픔의 고통스러운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는 상실의 대상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우울증은 상실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여기에는 대상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혹은 상실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후자에서는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무의식의 대상 상실과 관련된다. 『내 여자의 열매』에서 아

17)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248~251쪽.

내는 자신이 소망했던 이상적 삶을 상실한 경우이다. 그녀에게 이상적 삶이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환상이며 곧 허구이다. 그녀는 이에 대한 상실감에 시달리지만 이 때의 시달림은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시달림이 될 수밖에 없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슬픔과 우울증의 특징은 대부분 공통되는데 한 가지 예외로서 슬픔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자애심의 추락이다.¹⁸⁾ 그는 우울증의 임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도덕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 자아에 대한 불만” 혹은 “자기 비난”을 꼽았다.¹⁹⁾ 『내 여자의 열매』에 나타난 우울증적 주체의 양상은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등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이 때의 구체적 변주라 함은 바로 이러한 ‘자아 불만’이 이들 작품에서는 자기 징벌의 형식으로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특히 『그대의 차가운 손』의 L, 『채식주의자』의 영혜는 폭식, 채식, 거식을 통해 우울증적 주체의 자기 징벌적 양상을 뚜렷이 드러낸다.

『그대의 차가운 손』은 소설가 H가 조각가 조운형이 쓴 글을 읽는 형식을 취한 액자소설이다. 속 이야기의 형식으로 소개되는 조운형의 글은 라이프캐스팅을 주로 하는 조운형의 조각관 및 그 과정에서 만난 여성 L과 E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L과 E는 둘 다 우울증적 주체의 양상을 띠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폭식과 식이장애를 앓는 L에 대해 증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L은 어머니의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성폭행을 당한 상처를 안고 있는 인물이다. 어머니는 그녀의 얘기를 믿어주지 않고, 그러는 동안 정부의 성폭행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억압적 상황을 식욕을 통해 해소한다. 그 결과 그녀의 몸은 비만이 되었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소외된 채 살았다. 이러한 그녀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조운형과의 만남이다. 조각가인 그를 만나 손과 몸을 라이프캐스팅하면서 그녀는 차츰 자신

18) 프로이트, 앞의 글, 249쪽.

19) 위의 글, 254~255쪽.

의 몸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 시간은 잠깐에 그쳤다. 그녀가 학교 선배를 좋아하고 그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녀의 몸은 또 다른 변화를 겪는다. 감량과 요요를 거듭하면서 그녀의 몸은 폭식과 식이장애를 앓는 병리적 상태에 놓인다. 어린 시절 그녀의 왕성한 식욕은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여기에는 자신을 성폭행한 어머니의 정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머니 등에 대한 증오와 자기 연민이 섞여있다. 성장 후 다이어트의 휴유증으로 생긴 폭식증은 사랑하는 남성의 시선에 자신의 몸을 맞추고자 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비만과 다이어트 및 폭식의 과정을 거치는 그녀의 몸은 철저히 남성 중심적 세계 속에서 수동태로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대상을 공격하거나 증오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혐오하고 증오하게 된다.

“내가 진짜 참을 수 없는 건, 그 새끼가 아니야. 지금까지두 그 새끼 못 잊고 있는 엄마도 아니야. 내가 정말로 증오하는 건, 내 병신같은 모습…… 그렇게 병신같이 당하구 있었던, 나중엔 반항도 안 하구, 다 포기하구. 어디 신고할 생각도 못 하구. 비겁하게 가출도 못 하구…… 그래요,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건, 바로 나야…… 그렇게 몇백 번을 당해도 썼던……나.”

『그대의 차가운 손』, 177쪽.

L의 증오는 자신을 향해 있다. 이는 살이 찼을 때에나 날씬했을 때에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자신의 살찐 몸을 석고로 뜨서 만든 조각품을 산산조각 낼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에 대해 그녀가 느낀 것은 “진정한 살의”²⁰⁾이다. 또 그녀 스스로 말한다. “만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날 그렇게 확대했다면 진작 감옥 갔을 거야. 그렇게 굶기구, 한꺼번에 먹이구, 손을 집어넣어서 토하게 하고…… 감옥에 갇힌 죄인이래두 그렇게 다

20) 『그대의 차가운 손』, 146쪽.

를 순 없는 거잖아.”라고²¹⁾ 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평생 몸에 각인시킨 채 자기혐오와 비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녀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는 우울증 환자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자애심의 추락’, ‘자기 비난’의 형태에 속한다.

『채식주의자』에서 영혜의 채식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채식주의자』-『몽고반점』-『나무불꽃』을 통해 드러나는 영혜의 채식과 거식은 단순한 육식의 기피가 아니라 자기징벌이다. 이는 그녀의 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일련의 연작을 통해 채식 이유는 점차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그녀가 채식을 하게 된 계기는 ‘꿈’ 때문이다. 그녀는 헛간 같은 건물에서 시뻘린 고깃덩어리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그 고기를 먹은 느낌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 꿈을 꾸었다. 그로부터 채식이 시작되는데, 중요한 것은 꿈을 꾸게 된 계기이다. 꿈을 꾸기 전날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식칼 조각이 음식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이 이를 삼킬 뻔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그녀가 느낀 것은 자기 안에 내재된 폭력성 혹은 동물성의 위협 혹은 불안이다. 이 불안은 어렸을 적 그녀의 경험에 의해 내면화된 것이다. 아홉 살 즈음 그녀는 개에게 물렸던 적이 있다. 이 때 그녀의 아버지는 그 개를 잡아 요리를 하여 동네 잔치를 하였고 그녀 또한 개요리를 먹었다. 개의 죽음을 지켜보고 요리까지 함께 먹었던 기억은 그녀에게 자신이 행한 폭력의 경험으로 내면화되었다. 자신이 한 요리에 섞여 있던 식칼 조각은 자기 폭력성에 대한 상징적 대리물이다. 이러한 일련의 꿈 조각을 맞추어 볼 때 그녀의 채식은 자기 안의 동물성 혹은 폭력성의 발현에 대한 무의식적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귀착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다.

“무슨 얼굴이지? 누구의 얼굴이야?”

21) 『그대의 차가운 손』, 265쪽.

“……늘 달라요 어떨 땐 아주 낯익은 얼굴이고, 어떨 때는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에요. 피투성이일 때도 있고…… 씹어서 문드러진 시체 같기도 해요.”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뜨고 그녀의 눈을 마주보았다. 조금도 지치지 않은 듯 그녀의 눈은 박명 속에서 술렁거리고 있었다.

“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고기만 안 먹으면 그 얼굴들이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의지와 무관하게 차츰 그의 눈은 감졌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게 내 뱃속 얼굴이라는 걸. 뱃속에서부터 올라온 얼굴이라는 걸.”

『몽고반점』, 142~143쪽.

『몽고반점』에서 영혜는 형부인 그에게 자신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꿈속의 얼굴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위 예문은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즉 채식은 꿈속의 얼굴을 지우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이 결국 자신의 얼굴이었고 그것도 뱃속 얼굴 즉 태생적인 것이라면 어떤 행위로도 자신의 얼굴을 지울 수는 없게 된다. 결국 『나무불꽃』에서 영혜의 거식은 자기를 지우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식은 자기 소멸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극단적인 자기 부정 행위인 것이다.

『그대의 차가운 손』에서 L의 폭식과 식이장애, 『채식주의자』에서 영혜의 채식과 거식은 각각의 주체가 자신의 몸에 가하는 일종의 자기징벌과 관련된다. 전자는 남성의 시선에 맞추어 억압되고 대상화된 몸이 보여주는 주체적 반응이다. 남성적 시선의 요구에 복종하는 몸에 대한 주체의 무의식적 저항의 지점이다. 주체의 복종에 대한 주체의 저항이라는 점에

서 역설적 자기 징벌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태어날 때부터 폭력화된 자신의 기원에 대한 직접적인 자기 징벌이다. 자기소멸을 지향하는 거식은 이런 의미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극단적인 자기 징벌의 방식에 속한다.

L과 영혜에게서 드러나는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부정하고 싶은 경험이 몸의 차원에서 합치되면서 자기 자신을 애증의 대상으로 변모시킨다는 점이다. 영혜가 꿈속에서 확인한 ‘뺏 속 얼굴’이 그에 해당한다. 그녀가 지우고 싶었던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음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와 동일한 양상을 『그대의 차가운 손』의 L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난 다 극복한 줄 알았어. 아저씨가 내 몸을 처음 떼을 때 처음 그랬구…… 정말 그렇게 느낀 건, 오빠와 처음 잤을 때. 오빠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서로 옷을 하나씩 벗길 때마다 웃으면서 입맞췄을 때…… 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어. 갓난애 같이 새 몸이 된 것 같았어…… 그런데 아냐. 착각이었어. 평생 못 달아나. 죽을 때까지 난, 내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내 몸을 빠져나갈 수 없는 거니까.”

『그대의 차가운 손』, 177-178쪽.

L의 상처 또한 몸에 각인되어 그녀의 몸과 하나가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이 취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몸에 대한 이들의 태도와 관련지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이들의 폭식, 채식 및 거식은 은유가 아닌 환유가 된다. 그 의미가 서사적 인과성의 차원에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폭식, 채식 및 거식은 단순한 식욕, 음식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다. L과 영혜의 폭식, 채식 및 거식은 육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징벌이다. 자기 징벌이 이러한 형식을 취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상처와 몸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된다. 이들의 불안과 상처가 몸의 차원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물적 폭력에 가담했다는

죄책감, 성폭행을 당한 경험은 영혜와 L 모두에게 육체의 차원에서 합치된다. L의 경우 성폭행의 경험은 그녀에게 몸에 대한 여성의 이상 상실과 관련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두 여성은 모두 이상적 자아상의 상실로 아파하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때의 이상적 자아상이란 선형적으로 주어진 허구적 이상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의 상실감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우울증의 양상을 띠게 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자기 비난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즉 그가 현재 사랑하고 있거나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 혹은 꼭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향해 있다. 결국 우울증 환자의 자기 비난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비난이 환자 자신의 자아에게로 돌려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²²⁾ 이렇게 본다면 『그대의 차가운 손』의 L과 『채식주의자』의 영혜가 보여준 자기징벌의 화살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프로이트는 특히 이러한 자기 비난이 “도덕적인 이유에서 비롯”됨을 언급하였다. 이 글에서 살피고 있는 여성인물들과 관련지을 때 ‘도덕’이란 현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그 기원이 불투명한 당위라고 볼 수 있다. L의 경우 여성의 이상적인 몸(더럽혀지고 똥똥한 몸과 반대되는), 영혜의 경우 이상적 삶과 비폭력적 자아상이 그와 관련된다. 이들은 모두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허구적 차원의 이상적 대상이다. 이에 대한 사랑과 좌절 속에서 이들은 우울증적 주체가 되었다.²³⁾ 이들의 경우 그에 대한 복합적인 거부의 행위가 자기징벌의 형식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22) 프로이트, 앞의 글, 255쪽.

23) 이들의 자기비난은 표면적으로는 도덕의 위반에 대한 윤리적 반성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자기 비난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비난은 오히려 ‘도덕’ 그 자체를 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울증과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를 살핀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더 깊이 논의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해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4. 불가능한 발화와 가면의 전략

서사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서술자 혹은 화자는 서사를 펼치거나 서사의 필요에 부응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자이다.²⁴⁾ 이에 의거할 때 앞에서 다룬 「내 여자의 열매」의 아내, 『채식주의자』의 영혜, 『그대의 차가운 손』의 L과 E는 모두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인 피화자(narratee)이다. 이들은 서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서사를 이끌어가는 행위자가 아닌 대상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중심 인물이면서 화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말할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들 여성 인물들의 성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는 발화가 불가능한 피화자로서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해 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내 여자의 열매」와 「채식주의자」의 화자는 모두 남편인 ‘그’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이해하지 못한다. 전자에서 햇빛과 물을 요구하는 아내에 대해 남편은 왜 그럴까 생각해보지만 결국 “대체 무엇 때문에 괴롭다는 것일까”²⁵⁾라는 의문으로 그의 생각은 끝난다. 후자에서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칼로 팔을 긁기까지 하는 아내에 대해 남편은 더욱 더 이해할 수 없어 한다. 전자의 의문은 후자에 오면 절대적 거리의 확인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저 여자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던 그는 끝내 “한번도 들어가본 적 없는 그녀의 머릿속이, 그 내부가, 까마득히 깊은 함정처럼”²⁶⁾ 느껴지면서 이해해보려는 노력조차 단념해버린다. 이 불가해성은 부부간의 정서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내 여자의 열매」에서 아내의 증상은 병원에서 ‘노말’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나무불꽃」에 이르면 동일인물인 영혜의 증상은 병리적임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이에

24) S.리몬-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8, 132쪽.

25) 「내 여자의 열매」, 230쪽.

26) 「채식주의자」, 22, 33쪽

이르면 그녀는 보통의 건강인이 아니라 불가해한 환자가 되어버린다.²⁷⁾ 의사의 진단은 의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객관적 차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그가 내린 불가해성이라는 판단은 그녀를 일반 사회로부터 추방하는 판결문에 다름 아니다.

아내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 화자로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외적 정황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조차도 정확한 병명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녀에게 언어를 통해 객관적으로 서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져 버린다. 이들이 피화자로서 서술의 자격이 없다는 점은 결국 언어의 세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서술 혹은 명명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언어가 상징을 통해 형성된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세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녀들은 결국 지배 이데올로기의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도 영역도 확보하지 못한 존재들이다. 이것이 피화자의 불가능한 발화가 의미하는 바이다.

이러한 피화자의 위치에서 이들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세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까? 이들 소설에서 그녀들의 존재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 내면의 목소리만이 존재하는, 일방적이고도 자폐적인 세계 속에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존재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세계 속에서 나와서 지배 이데올로기적 세계의 언어를 자기화하는 방식이다. 전자가 『내 아내의 열매』와 『채식주의자』의 아내라면, 후자는 『그대의 차가운 손』의 E이다.

『내 아내의 열매』와 『채식주의자』에서 아내의 목소리는 별도의 독립적인 장을 통해 제시된다. 화자의 서술과 어떤 연계성도 갖지 않는 그것은 아내의 세계가 갖는 독립적 완결성과 폐쇄성을 의미한다. 즉 그녀의 세계

27) “하지만 김영혜씨 같은 경우는 정신분열증이면서 식사를 거부하는 특수한 경우예요. 중증의 정신분열증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솔직히 예측 못했습니다. 차라리 피독망상이 있는 경우엔 설득할 수 있지만요. 보는 앞에서 의사가 같이 음식을 먹는다면, 하지만 김영혜씨는 음식을 거부하는 이유 자체가 불분명하고, 약도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무불꽃』, 171쪽.

는 그 자체로서는 합리적인 정합성을 갖는다. 하지만 문제는 외부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외부의 세계에서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가며, 그녀의 언어는 ‘동물 같은 신음’ 혹은 ‘비명’이 된다. 영혜는 『나무불꽃』에 이르면 결국 정신병원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이 지점에 이르면 영혜는 세계와 소통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의사도, 간호사도, 다 똑같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약만주고, 주사를 찌르는 거지.”²⁸⁾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누구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영혜 자신도, 사회적 시선도 서로 완벽하게 배타적인 관계가 될 때 그녀는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호모 사케르가 된다.²⁹⁾ 정신병원에 갇힌 동생 영혜는 한편으로는 동물적인 신음과 비명을 질러대는 정신병자인 동시에 “모든 이차 성징이 사라진 기이한 여자 아이”이다. 이로부터 영혜는 사회로부터 추방된 자가 갖는 이상한 신성성의 분위기를 풍긴다.³⁰⁾ 이러한 분위기는 『몽고반점』에서 화자인 영혜의 형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짐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식물이며 동물이며 인간, 혹은 그 중간쯤의 낯선 존재”로서 갖는 그녀의 “어떤 성스러운 것”³¹⁾이 그녀이다. 이처럼 그녀가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배제시키게 된 바탕에는 아버지와의 손찌검이 있었다.

시간이 훌쩍 흐른 뒤에야 그녀는 그때의 영혜를 이해했다. 아버지의 손찌검은 유독 영혜를 향한 것이었다. 영호야 맞은 만큼 동네 아이들을 패주고 다니는 녀석이었으니 괴로움이 덜 했을 것이고, 그녀 자신은 지친 어머니

28) 『나무불꽃』, 190쪽.

29) 김미현, 앞의 책, 340쪽.

30) “살해는 가능하되 희생물로 비칠 수는 없는 생명”을 의미하는 호모 사케르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신성한’ 또는 ‘저주받은’이라는 두 의미 차원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채식주의자』의 ‘영혜’의 성격과도 맞물린다.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155~169쪽 참고.

31) 『몽고반점』, 107쪽.

대신 술국을 끓여주는 맏딸이었으니 아버지도 알게 모르게 그녀에게만은 조심스러워했다. 온순하나 고지식해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던 영혜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그 모든 것을 뺏속까지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안다. 그때 맏딸로서 실천했던 자신이— 성실함은 조속함이 아니라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다만 생존의 한 방식이었을 뿐임을.

「나무불꽃」, 191~192쪽.

「내 여자의 열매」에서 개와 관련된 폭력의 경험, 「나무불꽃」에서의 아버지의 손찌검 등은 모두 영혜의 무의식에 내재되어 그녀로 하여금 채식과 거식의 자기징벌을 행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영혜의 무의식이 그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여성 주체화의 한 양상이다. 위 예문은 이러한 영혜의 양상만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영혜를 통해 언니 인혜 또한 자기 주체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즉 영혜와 달리 인혜가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맏딸로서 아버지를 보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녀는 자신의 “성실함은 조속함이 아니라 비겁함”이었으며 “다만 생존의 한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은 인혜의 새로운 자각은 호모 사케르로서의 영혜가 인혜에게 타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영혜를 정신병원에 가둔 사람은 언니인 인혜 자신이었지만 그로 인해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게 된다.

피화자로서의 영혜가 어떻게 배제의 영역으로 몰리면서 호모 사케르가 되는지, 이를 통해 언니인 인혜는 어떻게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는 계기를 맞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영혜의 경우는 피화자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추방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대의 차가운 손』의 E는 영혜와는 다른 방식으로 피화자의 존재 방식을 보여준다. E가 세상에 진입하여 안착하는 방식은 가면의 전략이다.

내 원칙은 이랬어. 얼굴에 빛을 가질 것, 미적미적 뭉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당당하고 명쾌할 것.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밝은 얼굴을 하는 거지. 설득력 있는 얼굴. 호감을 주는 얼굴. 마음을 끄는 얼굴.

그렇게 해서 만들어간 내 얼굴은 예전의 내 얼굴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던 것 같아. 나는 갑자기 친구들이 많아졌으니까. 중학교에 갓 들어가 가슴이 채 발육되기도 전에 연애 편지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예전의 주눅들고 초조한 얼굴을 지으려야 지을 수 없게 됐다. 사실, 그 얼굴 역시 내 진짜 얼굴이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거야.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아기는 없을 테니까…… 결국 진짜의 내가 누군지 나는 잘 알 수 없어졌지.

『그대의 차가운 손』, 298쪽.

E는 어린 시절 육손이었다. 손가락이 여섯 개인 신체적 특이성으로 인해 그녀는 친구와 선생님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소외되기 일쑤였다. 나아가 들어 여섯 번째 손가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함으로써 물리적으로는 육손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육손이 시절의 경험마저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수술 후 그녀는 이 때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지우고 싶어했다. 그녀가 실내 공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된 것도 이와 관련된다. 정육점을 했던 그녀의 집은 “밤낮으로 축축한 이불과 문고리의 핏자국, 분쇄기가 돌아가는 소리, 분홍빛 형광등의 침울”³²⁾함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것들이 싫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지만, 그 바탕에는 육손이의 아픔이 자리잡고 있다. 곧 정육점의 분위기는 그녀에게 육손이의 시절을 연상시켰던 것이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 디자인은 육손이로서의 자신을 지우고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이는 소읍과 인천 시절을 지나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그녀가 취한 삶의 행동 전략과도 맞물린다. 지우고 만들기로서의

32) 『그대의 차가운 손』, 299쪽.

가면의 전략이 그것이다. 위 예문은 E가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가면의 전략을 동원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E가 세상으로 진입하는 방식은 여성 주체가 남성 중심의 세계 속에 진입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남성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결핍의 존재로 해석된다. 충족된 존재 즉 남성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여성의 결핍된 조건을 위장하는 데 동원되는 것이 가면(masquerade)이다. 가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쓰는 중요한 전략으로 논의된다. 라캉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한편으론 여성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한편으론 그것의 결핍을 위장하기 위해서이다.”³³⁾ 『그대의 차가운 손』에서 E가 보여주는 삶의 전략은 이러한 여성의 가면성에 토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대립적 구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녀의 상처는 자신이 육손이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육손이를 장애로 인식하는 사회 속에서 그녀는 소수적 약자의 삶을 체험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세상의 시선과 육손이로서의 E의 관계가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도와 동일한 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대립 구도 자체보다도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가면과 가면 뒤에 숨겨진 것과의 관계에 대한 E의 생각이다. 육손이 시절의 옛 얼굴과 이후 새롭게 만들어낸 얼굴 중 어떤 것이 진짜인지 그녀는 알 수 없어 한다. “결국 진짜의 내가 누군지 나는 잘 알 수 없어졌지”라는 그녀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예전의 얼굴도 지금의 얼굴도 진짜가 아니다. 이처럼 그녀에겐 ‘진짜 얼굴’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E의 위치는 현재의 얼굴과 ‘진짜 얼굴’ 사이가 되며 그 둘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발생하는 공허감이 그녀의 존재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E의 ‘진짜 얼굴’에 대한 전제가 잘못된 집착이었음을 보여주는 이가 조각가 조운형이다. 조운형은 라이프캐스팅을 즐기는 조각가이다. 라이프캐

33)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10, 175쪽.

스팅은 몸에 석고를 바르고 그것이 완전히 굳기 전에 뜯어내어 몸의 형태를 그대로 떠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몸의 일부 혹은 몸 전체를 라이프캐스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각에는 몸의 표피가 고스란히 기록된다. 라이프캐스팅을 통해 조운형이 보는 것은 몸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표피가 만들어내는 빈 공간이다. 『그대의 차가운 손』의 결이야기에서 화자인 H는 이를 간파하고 “결국, 그 작가가 보여주려고 한 건 누더기같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의 킁킁한 공동(空洞)이 있는지도 모른다.”³⁴⁾고 적고 있다. ‘공동(空洞)’은 조운형에게 삶의 진실에 대한 은유이다. 그가 삶을 빈 공간으로 해석하게 된 데에는 어린 시절 외삼촌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이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잘려나가고 없었던 그의 외삼촌은 평생을 그로 인해 고통받았다. 외삼촌은 평생 아무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오른손을 꼭 쥐고 살았다. 그의 손을 보게 된 것은 외삼촌이 죽어 엄을 할 때였다. 시체가 되어서야 확인한 외삼촌의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가 뭉툭하게 동강나 있었다. 다른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잘려져 있었을 뿐이다. 힘없이 허공을 향해 펼쳐져 있었을 뿐이다.”이었다. 이를 보고 조운형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속았다”는 것이다.

속았다.

나도 속았고 그도 속았다.

대체 저게 뭐였던 말인가? 다만 잘린 손가락일 뿐인 것을 두고 그는 침묵 속에서 그토록 결사적인 곡예를 펼쳤던가.

『그대의 차가운 손』, 74쪽.

그 동안 내가 혼을 불어넣어 빚어냈다고 믿어왔던 어떤 형상들보다 강렬하게 그 손은 실재하고 있었다. 어떤 생명을, 숨결을 훔쳐 감쪽같이 내 것으

34) 『그대의 차가운 손』, 11~12쪽.

로 만든 듯한 전율을 나는 느꼈다.

그러나 뺨 뚫린 손목의 입구로 들여다보이는 캄캄한 공동 속에는 혈관도 근육도 뼈도 없었다. 그것은 철저히 본질이 제거된 공간이었다. 그 때문에 그 손에서는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다. 무엇인가가 섬뜩했고, 차가웠으며, 비인간적이었다.

『그대의 차가운 손』, 91쪽.

외삼촌의 오른손에는 무언가 본질적인 진실이 있을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구속이 외삼촌에게는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운형이 확인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속았다는 것은 외삼촌의 비밀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적 진실이 사실은 허구였음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를 통해 그는 몸의 껍데기인 라이프캐스팅이 만들어낸 빈 공간, “철저히 본질이 제거된 공간” 그 자체가 진실임을 알게 된 것이다.

E는 가짜 의식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그녀는 조운형이 만든 그녀의 라이프캐스팅들을 깨버리면서 희열을 느끼지만, 이것을 깬다고 진짜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조운형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란 빈 공간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⁵⁾ 이러한 조운형의 생각은 가면 뒤의 본질을 부정하는 가면 이론과 상통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그에 선행하는 어떤 ‘존재’나 존재론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면 이론에 대해 비판적이다.³⁶⁾ 그에 선행하는 본질의 상정은 환영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상정되는 정체성의

35) 한강의 소설에서 예술가는 독특한 위상을 갖는다. 『그대의 차가운 손』의 속이야기 화자인 조운형도, 『몽고반점』의 화자인 인혜의 남편이자 영혜의 형부인 ‘그’도 모두 예술가이다. 이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신수정, 앞의 글, 204쪽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앞의 글에서 초점을 맞춘 이는 『몽고반점』의 화자이다.

36) 라깡은 여성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면의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면에 선행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선행적 존재란 없다는 것이 버틀러의 생각이다.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174~175쪽 참고.

이상은 환영이다. E에게 전제된 ‘진짜 얼굴’의 허구성이 바로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상 자체가 환영이요 허구이기 때문에 그녀가 지향하는 정체성은 실패한 드라마가 될 수밖에 없다.³⁷⁾ 그녀가 느끼는 공허감, 괴리감 등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5. 마무리: 우울증과 여성의 주체화

『그대의 차가운 손』의 조운형의 관점에서 볼 때 영혜, L과 E는 부재하는 본질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허구적 이상형과의 괴리감 혹은 그에 대한 상실감에 시달리는 자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모두 우울증적 주체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우울증적 주체의 양상이 어떻게 여성의 주체화와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체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복종 혹은 거부하면서 자신을 주체화한다. 이 글에서 살핀 일련의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지배이데올로기와의 복종/거부의 복합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주체화해간다. 이는 주로 무의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우울증은 이러한 무의식적 주체화의 지점을 잘 보여주는 양상이다. 영혜와 L을 통해서는 외면적 복종과 내면적 거부가 만들어낸 무의식의 잔여물을 통해 어떻게 여성적 호모 사케르가 탄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 E를 통해서는 지배 이데올로기적 삶의 형식에 편입하기 위해 여성이 취하는 가면 전략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은 남성 중심적 혹은 비장애자 중심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약자들이

37) 주디스 버틀러는 이를 여성의 젠더 정체성과의 관련 속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상징계가 규정한 방식으로 성별화되는 질서는 언제나 실패하며, 몇몇 경우에는 성 정체성 자체의 환영적 본성을 폭로하게 된다. 당대의 지배적 형식으로 문화적 인식 가능성이 되고자 하는 상징계의 요구는 다양한 정체성의 실패라는 드라마와 이런 환영들의 힘을 효과적으로 강화한다.” 위의 책, 193쪽.

자기 삶의 자리를 만들어나가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이 처한 사회의 구조 자체가 우울증적 주체를 생산하고 바로 그 지점이 이들을 주체로 탄생시키는 지점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대상으로 한 한강의 일련의 소설에서 유일한 여성 화자인 ‘인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영혜의 언니인 인혜는 『나무불꽃』의 화자이다. 이 작품에서 영혜는 정신병원에 갇혀 결국 죽음 직전의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지켜보는 이가 인혜이다. 『채식주의자』와 『몽고반점』이 영혜의 서사라면, 『나무불꽃』은 인혜의 서사이다. 여기에서 인혜는 동생 영혜를 통해 자기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인혜는 전형적인 가면성 우울증적 주체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집 안의 물건들을 둘러보았다.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과 꼭 같았다.

봄날 오후의 국철 승강장에 서서 죽음이 몇 달 뒤로 다가와 있다고 느꼈을 때, 몸에서 끝없이 새어나오는 선혈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믿었을 때 그녀는 이미 깨달았었다. 자신이 오래 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고단한 삶은 연극이나 유행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선 죽음의 얼굴은 마치 오래전에 잃었다가 돌아온 혈육처럼 낮익었다.

『나무불꽃』, 200~201쪽.

외적으로 볼 때 그녀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삶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인물이다. 이러한 그녀의 삶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만든 이는 동생 인혜이다. 정신병자가 되어가는 인혜의 삶과 연루되면서 정상적이었던 그녀의 삶 또한 문제적이었음이 드러난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단 한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녀는 자신이 선량한 인간임을 믿었으며, 그 믿음대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성실했고, 나름대로 성공했으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었다.”³⁸⁾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삶은 살아왔다기보다는 견뎌온 것일 뿐이었다. 위 예문

에서 말하듯 “연극이나 유령 같은” 가면의 삶이 자신의 삶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가면성 혹은 유령성의 자각에서 이 작품은 마무리 된다. 그녀는 가면 이면의 본질 혹은 어떤 것을 상징하지 않는다. 이 자각은 그녀의 삶을 재의미화하는 지점이 된다. 「내 여자의 열매」에서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및 「몽고반점」의 여성 인물들의 성격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은 바로 인혜이다. 그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울증적인 삶의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가면성의 자각이 곧 주체화의 재의미화 지점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한강(초판, 2000), 『내 여자의 열매』, 창비, 2010.
한강(초판, 2002), 『그대의 차가운 손』, 문학과지성사, 2010.
한강(초판, 2007), 『채식주의자』, 창비, 2010.

단행본

- 김미현, 『젠더 프리즘』, 민음사, 2008.
임옥희,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38쪽.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한국학술정보(주), 2007, 220~222쪽.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제1권 앎의 의지』, 나남, 1993, 109~110쪽.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2, 23~25쪽.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155~169쪽.
-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10, 174~175쪽.
- 프로이트,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248~251쪽.
- S.리몬-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8, 132쪽.
- Judith Butler, *Psychic Life of Power*,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1997, pp.1~2.

논문

- 김미영, 「소설교육의 한 가능성-생태소설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3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봄, 469~492쪽.
- 송연주, 「여성소설에 나타난 변신모티프와 환상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12, 283~308쪽.
- 김순옥,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변신모티프의 양상과 의미 고찰-최인석, 한강, 오수연, 박민규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1.2, 59~98쪽.
-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9, 문학과환경학회, 2010, 193~211쪽.
- 이찬규 · 이은지, 「한강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연구-『에코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46,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43~67쪽.

Abstract

A Study of Paradox of Subjection and its Melancholic Subject

-Focusing on Han Gang's novels-

Woo Mi-yeong

This study is aimed to figure out the method of feminine subjection described in Han Gang's novels in relationship with melancholia. For this, the following novels were investigated; 'The Fruit of My Lady (1997),' 'Her Cold Hands (2002)' and 'Vegetarian (2007).' In particular, it has attempted to examine the subjection mechanism through the narrative meaning of female characters in these novels (Yeong-hye, L, E and In-hye). First, this study has analyzed how the feminine subjection was correlated with seismic violence through 'the Fruit of My Lady' which was the matrix of 'Vegetarian (2007).' This novel described that pain and affliction which a woman couldn't recognize on her own were formed in the relationship with seismic violence. Specifically, the author understood that it was correlated with paradoxical obedience which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acceptance and rejection or subjection. This kind of concept was also the basis in 'Her Cold Hands' and 'Vegetarian.' It was explained that characters were the base to form a melancholic subject. Then, this study has figured out how the melancholic pattern of a feminine subject in 'Her Cold Hands' and 'Vegetarian' was expressed. First, how binge eating, vegetable eating and anorexic eating were correlated with the self-punishment pattern of the melancholic subject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meaning of the feminine subject as a narratee, which was found in all these novels, was analyzed. Furthermore, how the method of existence as a female subject which wasn't authorized to speak was expressed as the strategy of masquerade was investigated. Through these discussions, Han Gang's novels have revealed the typical pattern of feminine subjection because the pattern of melancholic subject handled in this study is not just a pathological symptom but the mechanism of self-subjection that a woman forms her identity in relationship with ruling ideology.

Key words: Han Gang, systemic Violence, Melancholia, Melancholic Subject, the Paradox of Subjection, Self-punishment, Narratee, Masquerade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